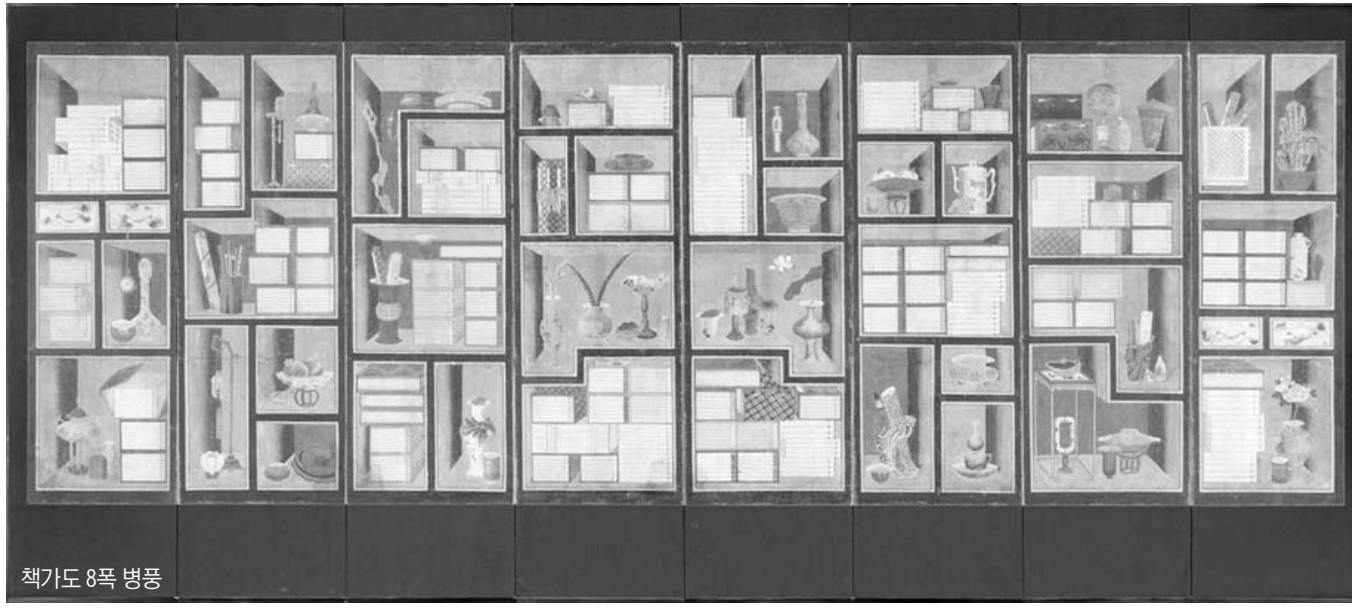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집 '책가도·문방도' 발간



책가도,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화훼, 기물 등을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높게 쌓아올린 책더미와 서재의 여러 일상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정물화풍 그림으로, 전통 장식화 및 민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책가도 중 하나인 문방도(文房圖)는 선비들이 항상 지니고 다닌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를 배치한 그림을 말한다.



책가도 8쪽 병풍

# 책 가까이 한 선조들 생활상 들여다볼까

궁중화원 이형록 그림 등 주요자료 27점 분석  
한국 회화사 흐름 속 박물관 소장품 특성 살펴

책가도와 문방도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 생활용구로써 가치가 높은 책가도 4점과 문방도 23점 총 27점을 선별해 수록한 소장품 자료집 '책가도·문방도'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크게 두 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첫째 장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책가도·문방도를 도판과 함께 소개하면서 한국 회화사의 흐름 속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이 갖는 특성을 살렸다. 책장이 그려진 것만을 책가도로 명명하고, 그의 문방을 주제로 한 것은 문방도로 구분해 실었다.



돌잔치 이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사진

둘째 장은 책가도의 기원과 형식, 용도를 정리하고 그 안에서 박물관 소장 책가도와 문방도의 종류와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소장품 '책가도 8쪽 병풍'을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해 조선식으로 변용된 투시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했다. 책가도에 자주 등장하는 서랍과 문갑의 표현, 책가도 속 도장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분석했다. 문방도에 대해서는 이형록(李亨祿, 1808-1883년)이 그린 그림 분석을 통해 궁중 화원이 그린 문방도의 특징을 짚어냈다. 또 문방도에 그려진 규표, 책과 안경, 그림, 편지봉투에 적힌 정보 등을 통해 문방도 속 기물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대 정보에 대한 내용도 분석했다. 부록에는 문방도에 그려진 주요한 기물, 문양 등을 모아 정리했으며 주요 작품 17점에 대해 XRF 기기를 이용한 안료 분석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정조(正祖)는 어좌 뒤에 책가도를 둘러 늘 책과 가까이

하고픈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책과 학문을 중요시했던 풍조는 책과 고동기(古銅器), 도자기 등을 수집하고 즐기는 문방정원(文房淸苑) 취미의 확산을 가져왔다. 선비들의 방에 책가도와 문방도가 장식됐고, 민간에서는 아이가 책과 문방구를 가까이하는 선비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돌잔치 상에 문방도를 돌렸다. 국립민속박물관 상설3관 '한국인의 일상' 전시 '첫 돌' 부분에는 문방도 병풍을 두른 돌상에서 돌잔치를 하는 모습이 전시돼 있다. 이외에도 자손 잉태의 바람부터 상장례 이후 제사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주요한 의례에 사용됐던 그림이 맥락에 따라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그림을 민속 자료로써의 쓰임에 주목해 수집해왔으며, 약 400여건 그림을 소장하고 관련 주제의 전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마은의 가게=이서수 저자  
시대의 부조리를 깨닫는 예리한 시선,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와 문장으로 청년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이서수의 세 번째 장편소설 '마은의 가게'가 출간됐다. 어디선가 마주쳤을 법한 인물들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읽히면서 보편의 정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택배 상하차,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 '월급사실주의' 동인이기도 한 이서수가 그려내는 작품 속 캐릭터들은 당장의 현실과 노동의 현장을 선명하게 그려내며 독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문학과지식사·1만6천원



▲고립된 빈곤=박유리 저자  
10여 년간 형제복지원의 진상 그리고 피해자와 생존자의 투쟁을 기록해 온 저널리스트 박유리 작가가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해 '고립된 빈곤'을 발간했다. 피해자, 수용소 설계자,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체제, 생존자의 투쟁, 정치권 반응과 형제복지원의 '형제들'(유사 사건)을 충분히 살피고 써 사건에 대한 표피적인 정보 아래의 사람과 사회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인간성을 말살했던 국가의 범죄와 정권의 폭력 그리고 비정한 사회 현실을 돌아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꾸준히 이어진 '빈곤 청소'와 고립의 현대사에서 기인한 것임을 정리했다. /시대의창·1만8천원



▲이야기 미술관=안창원 저자  
독보적인 미술계 스토리텔러 이상용 저자는 '이야기 미술관'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불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림 속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 나간다. 저자는 '읽는 그림(고전주의)'을 통해 화가의 생애, 작품 탄생 배경, 그림 속 비하인드를 보여주며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품 속 인생을 들려준다. '이야기 미술관'에는 '영감', '고독', '사랑', '영원' 4개의 방이 존재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 세기 전 탄생한 걸작들을 살펴본 후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림의 세계로 들어간다. /웨이북·2만원



▲오늘부터 나는 생애 시민입니다=공은희 저자  
이 책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8가지 환경 문제를 선정해 생태계와 인간 사이의 긴밀성을 다각도로 보여준 뒤,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는 청소년 교양서다. 기존의 환경 관련 교양서들과 달리 '생태 중심주의'와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일상적 실천뿐 아니라 대사회적 행동을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 동물과 식물을 위해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주체적인 '생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비교육·1만7천원

# 원로작가 손형섭 제3수필집 '아무려면 어때랴' 출간

문예지·신문 등 발표 작품 40편 한데 모아  
원로 작가 정인 손형섭(사진)의 제3수필집 '아무려면 어때랴'(서석 펴)가 출간됐다. 이번 수필집은 그동안 문예지와 일간지, 대학신문, 잡지 등에 발표했던 작품 중 40편을 한데 모아 10편씩 4부로 나눠 수록했다. 회고적이면서 감상적인 글이 대부분이다. 1부 '고향길을 거닐며'에는 문예지에 쓴 16편 작품과 잡지에 발표된 3편 글 중 고든 10편을 실었다. 저자의 지나온 삶에 관한 이야기다. 2부 '경제만 있고 도덕은 없고'에는 일간



지에 기고했던 21편 칼럼 중 10편을 골라 담았다. 대부분 경제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3부 '대학의 변화와 개혁'에는 대학신문에 게재된 23편 칼럼 중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글 5편과 그간 발표한 격려사 42편 가운데 남기고 싶은 글 5편을 골라 수록했다. 4부 '산상수훈과 경제윤리'에는 저자가 다니고 있는 광주 벨레교회에서 펴낸 '벨레미

선' 기고 칼럼 22편 중 성서경제 칼럼 10편을 선별해 실었다. 저자는 "지난날 이곳저곳에 발표했던 집다한 글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수필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수필작 대부분이 20-30년 지난 글이기에, 오늘날 현실과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1942년 전남 화순 출생인 저자는 광주상고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와 동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목포대 대학원장·사회대학장·경영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활

동하고 있다. 2007년 정년퇴임 후 문명란 시인 서은 문학연구소에서 시 창작을 수강하며 늦깎이로 창작의 길에 들어선 그는 75세인 2017년 '문학예술' 불호에 시 부문 신인상을, 가을호에 수필 부문 신인상을 각각 받으며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왕성한 창작욕으로 시집 '별빛', '파도', '만주', '겨울 나그네' 등 4편과 수필집 '삶의 흔적', '추억' 등 2권을 발간했다. 82세인 지난해에는 '월간문학' 가을호 시조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b>시내 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국 222-8171</li> <li>· 산수지국 224-4188</li> <li>· 학운지국 673-6836</li> <li>· 화정지국 372-9140</li> <li>· 금호지국 376-7153</li> <li>· 풍암지국 603-0311</li> <li>· 노대지국 674-35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지국 453-2554</li> <li>· 광천지국 374-2120</li> <li>· 진월지국 676-2726</li> <li>· 봉선지국 673-6836</li> <li>· 백운지국 673-0123</li> <li>· 두암지국 266-1920</li> <li>· 농성지국 362-41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지국 222-8171</li> <li>· 운암지국 529-3548</li> <li>· 용봉지국 261-1503</li> <li>· 신가지국 954-1420</li> <li>· 양산지국 574-3745</li> <li>· 하남지국 951-9954</li> <li>· 운남지국 952-168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치지국 261-9461</li> <li>· 문흥지국 261-9462</li> <li>· 일곡지국 573-3200</li> <li>· 첨단지국 971-7374</li> <li>· 치명지국 371-9584</li> <li>· 수완지국 955-0451</li> <li>· 광산지국 944-0993</li> </ul>
<p><b>지방 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지사 061)270-8689</li> <li>· 동문포지사 061)278-0740</li> <li>· 남문포지사 061)245-3797</li> <li>· 신안지사 061)980-8300</li> <li>· 순천지사 061)746-1600</li> <li>· 여수지사 061)651-6433</li> <li>· 나주지사 061)335-0005</li> <li>· 광양지사 061)793-6800</li> <li>· 구례지사 061)782-4696</li> <li>· 담양지사 061)383-5566</li> <li>· 곡성지사 061)362-5746</li> <li>· 고흥지사 061)832-6290</li> <li>· 보성지사 061)852-6644</li> <li>· 화순지사 061)373-7795</li> <li>· 장흥지사 061)863-6800</li> <li>· 강진지사 061)432-8899</li> <li>· 해남지사 061)535-5849</li> <li>· 영암지사 061)473-7151</li> <li>· 무안지사 061)453-3645</li> <li>· 함평지사 061)322-0882</li> <li>· 영광지사 061)353-5133</li> <li>· 장성지사 061)394-3636</li> <li>· 완도지사 061)555-0134</li> <li>· 진도지사 061)542-4330</li> </ul>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